

준비 못지않게 사후관리도 중요

펠로우십 프로그램 적극 지원, 참여로 한국출판계 우수성 알려야



문승현 |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부

‘세계 최대의 도서전’, ‘문화 올림픽’이라는 걸출한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이 2005년 10월 19일부터 닷새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행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한 많은 작업들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역대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들보다 다소 불리한 위치에서 주빈국 참가를 하게 되었다. 역대 주빈국들 중 인도와 일본만이 아시아 국가이고, 나머지는 유럽 및 중남미 국가들이었다. 유럽 및 중남미 국가들은 서로에 대해 너무도 잘 아는 것이 당연할 정도이고, 인도는 세계 4대문명의 발생지로 세계적으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우리보다는 훨씬 오래된 서구와의 교류 역사로 유럽 내에서 잘 알려진 상황이었다. 또한 일본이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가한 1990년은 일본경제호황의 정점으로 역대 주빈국들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단이 폴커 노이만 조직위원장을 만나 주빈국 참가를 논의한 2002년 10월 당시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차차 호전되리라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작년 출판시장 규모만 보더라도 IMF지원체제 때보다 좋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주빈국 행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리라 믿고 있던 기업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어려운 작금의 상황에서도 현재 주빈국행사는 독일 전역에서 대단한 호응을 얻으며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요즘 언론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한국의 책 100’은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번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행사의 전부는 아니다. 핵심적으로 보여 줄 것이 없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지만, 도서전 참가가 몇 달 남지 않은 지금 막연한 질타보다는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다.

일본이 역대 주빈국들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했다고 했지만, 지출과 성공여부는 항상 비례관계는 아닌 것 같다. 성공적인 주빈국 행사를 펼쳤다고 평가받는 네덜란드나 아일랜드는 적은 예산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다.

그렇다면 주빈국 참가 성공의 척도는 무엇인가? 가장 직접적인 기준은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참가 후 얼마나 그 해당국가의 작가들과 출판물이 독일 및 유럽 전역에 홍보되는가 하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독일 바로 옆에 있는 국가지만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참가 전에는 독일출판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나 1993년 주빈국 참가를 계기로 네덜란드 작가들이 독일에 활발히 알려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베스트셀러 작가도 탄생했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조직위원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다.

2002년 FIFA월드컵을 일본과



올해 프랑크푸르트도서전 펠로우십은 10월 8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며, 신청 마감은 4월 30일까지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프랑크푸르트도서전 공식홈페이지 www.frankfurt-bookfair.com에서 알아볼 수 있다.

공동 개최했을 당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어마어마한 성과에 당황해 했었다. 불붙은 불은 악마의 열기를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해 많은 토의도 했다. 그러나 그때의 토의는 토의로 끝난 감이 없지 않다. 이번 주빈국 행사도 한국인 특유의 결집력을 발휘해 성공적으로 잘 치러낼 것이라고 감히 예상하는 바, 2005년 10월 이후 우리 문화와 출판에 대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한국문화, 출판홍보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조직위원회는 매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펠로우십'이라는 출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전 세계의 25~45세의 출판사 실무자로서 16일간 독일 대표 출판도시인 뮌헨, 프랑크푸르트, 베를린의 독일 우수 출판사들을 탐방하고 서로의 노하우,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지금까지

39개국 120명이 참가한 본 프로그램은 독일 출판계를 해외 출판 실무자들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만, 또 하나의 효과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출판인들이 인적 교류를 쌓고 자국에 돌아가 인적 네트워크를 비즈니스로 확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올해 프랑크푸르트도서전 펠로우십은 10월 8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며, 신청 마감은 4월 30일까지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프랑크푸르트도서전 공식홈페이지 www.frankfurt-bookfair.com에서 알아볼 수 있다.

한국의 유능한 출판인들이 본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해 참가하게 된다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한국 출판계와 출판물의 우수성을 세계 출판인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저작권 수출뿐만 아니라 공동기획 출판까지도 가능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

한국의 출판수준은 세계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를 아는 해외 출판인

들은 많지 않다. 도서전에서 우리도서를 전시하여 출판계 수준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많은 출판인들이 참가신청을 해 국제무대에서 해외 출판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유럽인들은 해외여행을 하면 보통 한 도시에 일주일 이상을 머물면서 느긋하게 그 도시를 체험하고 음미한다. 반면 한국인들은 외국, 특히 유럽에 가면 짧은 기간 동안 가능한 많은 도시를 둘러보려고 한다. 2주일 만에 유럽 대부분의 국가를 돌아볼 수 있다는, 다소 허무맹랑한 패키지 여행상품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참가를 준비하는 우리는 이런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양보다는 질로서 승부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적인 접근 방법이 아닐까. ☞